

倫理的 自淨의 관점에서 하우어워스 읽기*

문시영 (남서울대학교 교수)

I. 들어가는 말

II. ‘自淨’의 관점에서 하우어워스 읽기

1. 거시적 자정으로서의 교회됨
2. 미시적 자정의 단초와 한계

III. 나오는 말

* 이 논문은 2013년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NICE)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이 글은 한국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적’이라는 표현의 다의성과 포괄성을 고려할 때, 그 뜻을 필자의 입맛에 맞게 한정지어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 교회에 대한 비판이 넘쳐나는 정황이 주된 배경이 되었다는 뜻이다.

• ABSTRACT •

Moral Sanctions, Being-Church, and Reading Hauerwas

Moon, Si-Young

This paper is a suggestion of Christian ethics for Church reformation via reading Hauerwas from the perspective of moral sanctions for 'Being-Church'. In spite of many implications in Ecclesial Ethics of Stanley Hauerwas, some ethicists complain that Hauerwas does not provide concrete way to practice 'Being-Church', especially in Korea.

This paper suggests two aspects of reading Hauerwas from macro and micro level. In macro level, 'Being Church' is the agenda for Church reformation. As we know, Hauerwas begins from the Church and emphasizes 'being Church' as the most urgent task of Christian faith. Ecclesial Ethics refuses the 'Constantinian accommodation' and focuses the importance of Christian virtue of peace according to Jesus narrative. In Korean context, 'Being Church' must be the moral vision for Church reformation.

In micro level, Ecclesial Ethics needs to study for moral sanctions for 'Being Church'. Although, there are so many insights to method for practicing the vision or agenda for Church reformation, it is true that Hauerwas has some shortcomings in moral sanctions for morally deviated actions in Church. Of course, Hauerwas has deep confidence on God's lordship in these problems. But, there are some needs to be enlarged the clues for corrective justice for moral self-purification of Church. Especially, reforming the Church is the key point which has to be recognized to all Christians and Church.

Key words: Moral Sanctions, Corrective Justice, Being-Church, Ecclesial Ethics, Constantinian accommodation, Christian Communitarianism, Hauerwas.

I. 들어가는 말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교회윤리’(ecclesial ethics)를 대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직면하는 난제 중 하나는 하우어워스의 윤리적 비전을 실천할 구체적인 방법론은 무엇인가의 문제일 듯싶다. 하우어워스의 문제의식이 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위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준 것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교회의 윤리적 자정(自淨) 의지와 실천능력이 문제시되고 있는 한국적 맥락에서, 구체적 실천방안은 부각되지 않는다는 데 한계가 있다.

한 마디로, 교회됨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것에 비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의 문제는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셈이다. ‘교회되지 못함’ 혹은 ‘교회답지 못함’의 모습들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과연 윤리적 자정이 가능할까? 교회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척결할 방안은 있는가? 이 질문들은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귀결된다. 하우어워스는 윤리적 자정을 신뢰하는가?¹⁾

II. ‘교회됨’의 자성(自省)과 자정(自淨)

1. 거시적 자정으로서의 교회됨

하우어워스의 핵심적인 공헌은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기독교윤리의 본질적인 주제이어야 하며, 그 해답은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1) 교회의 자정에 관한 하우어워스의 언급은 거의 없다. 교회됨 자체가 자정의 비전이며 그리스도인다운 덕성 함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듯싶다. 필자가 2010년에 듀크대학에 하우어워스를 방문하여 교회윤리의 실천전략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우어워스는 ‘전략’이라는 표현에 반감을 표했다. 전략(strategy)이라는 말 자체가 사회정책을 제시하는 부류에서 즐겨 쓰는 표현이며, 자신의 관점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됨의 방법론이 절실한 우리의 상황에서, 하우어워스에게 (소중과 논란에 더하여) 교회됨을 위한 방법론이 없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교회, 복음에 합당한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임을 일깨워 준 데 있다. 예수 내려티브에 따른 덕목들을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인다운 덕과 성품을 함양시켜 교회다운 교회되는 것이야말로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가 추구하는 요점이라 할 수 있겠다.²⁾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기독교윤리의 핵심은 ‘교회’이어야 한다. 기독교의 윤리적 응답은 교회에서 시작되어 한다고 말했던 대목은 이러한 생각을 상징적으로 대변해준다. 이제까지의 기독교윤리가 추구해온 사회정책이나 전략의 제시보다 ‘교회됨’이 기독교윤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요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준 셈이다.

하우어워스가 기독교윤리라는 분과학문의 개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교회의 윤리적 이상과 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해준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나아가, 교회됨 즉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것을 기독교윤리의 핵심과제로 제안한 하우어워스의 관점은 분과학문으로서의 기독교윤리학에 국한될 주제가 아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 모두가 공유해야 마땅한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의 문제의식을 핵심적으로 간추려 주는 문장이 있다. ‘교회의 으뜸가는 책무는 교회 자체가 되는 것’이다.³⁾ 여기에는 현대사회에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자성과 평가가 담겨 있다. 혹은 오늘의 교회가 본래적 정체성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안타까움이 반영되어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교회의 자정능력으로서의 ‘거룩을 잃어낸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⁴⁾ 이것 또한 아젠더를 제시했을

2) 문시영,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20집, 2010; 「하우어워스와 덕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23집, 2012;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비추어 본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한국기독교학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9집, 2012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3)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북코리아, 2010), 30. ‘the first task of the church is to be itself’.

뿐, 구체적인 실천을 주지 못한 것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하우어워스의 경우도 유사한 평을 받을 수 있다.

해석상의 문제이기는 하겠지만, 하우어워스의 문제의식 자체가 교회의 윤리적 자정을 말한 것일 수 있다. 교회가 ‘자유주의’ 정치와 결탁하여 복음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음을 일깨워 줄 뿐 아니라, 교회의 본래적 존재이유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회는 사회정책과 전략의 제안자가 될 것이 아니라,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덕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스택하우스(Max L. Stackhouse)의 공공신학(public theology)와 카운터파트가 되는 듯 보일 수 있다.⁵⁾ 하우어워스의 관점은 공공신학의 문제의식을 폄훼하려는 의도보다는 기독교윤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를 교회 안에서 찾고자 하는 노력의 표현일 듯싶다.

하우어워스가 말하고자 했던 것은 ‘콘스탄틴주의’에 대한 비판 및 자유주의 정치에 대한 교회의 ‘결탁’ 혹은 ‘동화’(accommodation)에 관한 윤리적 자성(自省)을 통한 교회의 윤리적 자정(自淨)의 촉구였다. 교회의 개혁이 절실한 오늘의 사회에서, 교회로 하여금 본래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교회가 지닌 예수 내러티브 즉 복음에 충실해짐을 통해 교회됨을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교회개혁을 추구하는 길이 되리라는 생각인 셈이다. 하우어워스가 교회를 덕의 학교 혹은 성품의 공동체라 일컫는 이유 또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하우어워스가 호주에 초청되어 강연했던 내용들을 출판한 『기독교제국의 상실?』(After Christendom?)에서 이 책이 훗날 『나그네 된 거류민』(Resident Aliens)의 신학적 배경을 심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4) 배정훈, 「기독교 자정능력으로서의 거류의 발견」,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47호, 2003, 105-113.

5) 문시영, 「니버의 사회윤리에 관한 공공신학적 해석」,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 사회윤리』, 16집, 2008을 참고하기 바란다.

되었다고 술회한 대목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⁶⁾ 책 제목에 ‘물음표’(?)를 붙인 것은 답을 찾기 어려운 우리시대 정황의 반영이라는 부연설명을 덧붙인 이 책에서,⁷⁾ 하우어워스는 아우구스티누스에게 관심을 집중한다. 기독교의 정체성에 물음표를 붙여야 하는 난처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아우구스티누스가 그 힌트를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담겨있는 셈이다.⁸⁾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어떤 이들에게는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세에 나타난 교회의 지배를 말해준 선구자로, 다른 이들에게는 이러한 중세적 교회에 대한 프로테스탄트적 거부의 시조로 해석되기도 한다.⁹⁾ 하우어워스는 자신이 후자 계열에 속하는 것임을 암시라도 하듯이 라인홀드 니버(Reinhold Niebuhr)를 언급하면서도 현실주의적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교회가 지닌 공동체적 정체성을 간과하게 쉽다는 이유에서이다.

특히 니버는 아우구스티누스가 교회야말로 유일하고 진정한 정치공동체라는 인식했던 사실을 놓치고 말았다. 진정한 덕을 위하여 사랑의 질서를 요구한 아우구스티누스의 통찰 즉 욕구들의 질서를 바로 잡는 길은 교회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것이다.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니버의 아우구스티누스 해석과는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이 아닌 한, 과연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를 말해준 인물이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것이다.¹⁰⁾ 이것은 맥킨타이어의 영향을 받아 정치적 자유주의를 불신하는 하우어워스 자신

6) Stanley Hauerwas, *Hannah's Child : A Theologian's Memoir*(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0), 225.

7) Stanley Hauerwas, *After Christendom?*(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12.

8) 위의 책, 39.

9) 위의 책, 40. 예를 들어, 니버(Reinhold Niebuhr)는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한 현실주의적 읽기를 시도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는 교회야말로 유일한 진정한 정치공동체라고 주장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하우어워스의 관점이다.

10) 위의 책, 39.

의 태도를 암시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하우어워스의 교회관을 ‘자폐적’ 혹은 ‘소중파적’이라고 몰아세우기 전에, 그가 교회됨의 제안을 통해 기독교윤리를 개혁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고자 했던 진의를 파악하는 것이 옳을 듯싶다. 물론, 하우어워스에 대한 칭송일변도의 접근보다 비판적 시각을 충분히 고려한 균형 있는 읽기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¹¹⁾ 중요한 것은, 하우어워스가 교회의 본래적 정체성을 일깨워 교회의 개혁을 추구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 다시 말해, 하우어워스의 문제의식 자체가 윤리적 자정의 비전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 하우어워스의 문제의식에 한국적 맥락을 대입할 경우, 변수가 생긴다. 그가 제안한 ‘교회됨’의 통찰은 동의할만한 가치가 있는 중요한 문제의식이지만, 하나의 ‘아젠다’ 내지는 ‘방향제시’에 그치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심지어, 공공성을 앞세운 공공신학이 훨씬 더 시의성이 크다고 생각하여, 하우어워스의 제안을 이내 ‘원론적인 이야기’로 평가 절하될 우려가 크다. 사실, 한국적 맥락에서는 ‘복음에 충실한 교회됨’ 그 자체에 만족하기보다 공공성 구현이 더 피부에 와 닿는 이야기로 해석되고 있으며, ‘교회됨’은 문제의식으로는 좋으나 구체적 실천방안이 없는 제안으로 간주되기 쉽다.

특히, 교회의 윤리적 자정이 절실하다는 강박관념이 지배하는 오늘의 한국적 정황은 ‘교회됨’이 지닌 ‘거시적’ 자정의 가치를 충분히 평가하지

11) 퍼거슨(David Fergusson)은 하우어워스의 인식론적 상대주의의 문제와 함께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온 윤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읽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중파적 위협의 문제에 대해서도 따끔하게 지적하면서, 하우어워스에게 성령론적 접근이 부족해 보인다고 말한다. David Fergusson,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6-9, 64. 하우어워스에 대한 긍정일변도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한 다음 글도 참고하기 바란다. 김현수, 「스탠리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 비판적 읽기」,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21집, 2011.

못한 채, ‘미시적’ 자정 즉 교회의 시민적 개혁을 위한 구체적 방법론과 실천방안들을 요구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기 쉽다. 솔직히, 하우어워스가 『교회됨』(*A Community of Character*)의 한국어판 서문에서 말했듯이 교회됨의 하우어워스가 처한 미국적 정황과 한국의 그것이 같지는 않다. 더구나 하우어워스의 한국적 읽기는 한국인의 몫이다.¹²⁾ 이러한 뜻에서, 미시적 차원에서의 윤리적 자정을 위한 방법론을 다루는 것이야말로 ‘자정’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 한국적 읽기를 위한 핵심이라 할 수 있겠다.

2. 미시적 자정의 단초와 한계

1) 공동체주의 윤리가 주는 단초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가 거시적 차원의 교회자정을 말해준 것이라면, 미시적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 매뉴얼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사실, 하우어워스에게서 교회됨의 실행 매뉴얼 내지는 교회자정의 방법론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다만, 하우어워스의 한국적 읽기, 특히 교회의 윤리적 자정의 문제와 연관 지어 생각해 볼 단초가 있기는 하다. 학문적 주소를 찾아가자면, 공동체주의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공동체주의에서 자정의 문제에 대해 어떤 답을 주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는 뜻이다. 하우어워스의 윤리가 ‘기독교공동체주의’(Christian communitarianism)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을 생각해 보면,¹³⁾ 공동체주의는 과연 실효적인 교정수단을 가지고 있는가의 문제부터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덕 윤리의 현대적 재론에서 주목받는 고전으로서의 아리스토텔

12) Stanley Hauerwas, 문시영 역, 『교회됨』(북코리아, 2010), 한국어판 서문.

13) David Fergusson,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1.

레스의 관점은 중요한 단초일 수 있겠다. 최근의 공동체주의 윤리학자 중에서, 샌델(Michael Sandel)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한다. 샌델이 보기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서 정의란 ① 텔로스(τέλος)에 근거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를 다루는 것이며, ② 텔로스(τέλος)에 따르는 행위에 대한 존경을 표하는 것이다.¹⁴⁾ 각자에게 마땅한 몫을 주는 것이요, 각자의 탁월성에 따라 존경하여 대우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을 '시정(是正)적 정의'(diorthotikon dikaiōn)라 할 수 있다.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과 텔로스, 행복과 덕에 관한 논의를 공동체의 맥락을 통해 성찰하고 제5권에서 정의에 관한 몇 가지 제안을 준다. 정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 및 일반적 정의와 부분적 정의에 대해 논한 후, 아리스토텔레스는 분배적 정의에 대한 부분 바로 다음에 시정적 정의를 다룬다. 그 요점은 시정을 통하여 교환이 일어나기 이전의 쌍방이 지니고 있던 몫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다.¹⁵⁾

아리스토텔레스의 목록을 좀 더 유심히 살펴보면, 시정이 필요한 대상들은 자발적인 것들(ta hekousia)과 반(反)자발적인 것들(ta akousia)로 나뉜다. 판매, 구매, 대출, 보증, 차용, 위탁 등이 자발적인 것에 해당하며, 반자발적인 것에는 속임수에 의한 것들(ta lathraia)과 강제적인 것들(ta biaiā)이 구분된다. 속임수에 의한 것으로는 절도, 간통, 독살, 암살, 위증 등이 속하고 강탈, 상해, 모욕 등이 강제적인 것에 속한다.¹⁶⁾

이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되갚음' 혹은 '되당함'에 있어서의 정의에 대해 다룬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동해보복'(同害報復)의 'talio' 방식이 아닌,

14) Michael J. Sandel,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s to Do?*(New York: Straus and Giroux, 2009), 225.

15) *Nicomachean Ethics*, 1132a13-20. * 한국어 번역은 Aristoteles, 최평관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서광사, 1989)를 참고하였으며, 이어지는 각주부터는 고전표기의 전통을 따라 책 이름을 *Nicomachean Ethics*로 표기했다.

16) *Ibid.*, 1131a1-9.

‘비례응징’(比例懲儆)의 방식을 제안한다. 즉 비례하는 되당함 혹은 비례하는 되값음을 제안한 것이다.¹⁷⁾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을 일반적으로, 응징주의적 처벌론(retributivistic penology)이라 해석한다. 응징을 말하되, 정의로운 응징을 지지한다는 뜻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일탈된 응징을 지지하지 않는다.¹⁸⁾

공동체적 맥락에서 유의할 것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 원상회복의 요소가 들어 있다는 점이다.¹⁹⁾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은 결여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더불어 삶을 통해 공동체를 꾸려가고 행복증진 및 공익에 기여하게 하려는 맥락에서 읽을 필요가 있다.²⁰⁾ 훼손된 분배정의를 회복시키는 것이 시정적 정의의 의도라 할 수 있다면,²¹⁾ 이는 거래 혹은 교환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와 악행들에 대한 응징 및 처벌을 통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

시정적 정의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본질적으로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는 점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 하나는, 공동체의 정의회복을 위한 것이지, 지나친 복수와 와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공동체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특히, 공동체의 외부 세력에 의한 응징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다. 시정적 정의는 본질적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속하는 문제이며, 무엇보다도 덕 혹은 성품의 사람들에 의한 시정과 회복의 노력이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중용의 덕과 연관을 짓는다면, 복수

17) *Nicomachean Ethics*, 1132b32-34.

18) 권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 응징정의관을 중심으로」, 한국서양고전학회, 『서양고전학연구』, 10권, 1999, 34.

19) Mary M. Mackenzie, *Plato on Punishment*, 18. * 권창은의 글 37쪽에서 재인용했다.

20) *Nicomachean Ethics*, 1129b14-19, 25.

21) 유호종, 「응보주의 형벌론 검토」, 한국분석철학회, 『철학적 분석』, 5호, 2002, 126.

하는 사람이기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될 것을 제안한 것이다.²²⁾ 중용의 덕을 지닌 사람은 걱정(pathos)에 휩쓸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성(logos)에 따라 ‘마땅히 화를 내야 할 일들에 대해, 마땅히 화를 내야 할 자들에게, 화를 내는 마땅한 방식으로 화를 내야 할 마땅한 때에, 화를 낼 마땅한 시간 동안만 화를 내는 사람’이다.²³⁾ 다시 말해, 시정적 정의를 말한다고 해서 무차별적 응징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며, 성품과 덕의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2) 기독교공동체주의와 윤리적 자정

하우어워스의 기독교 공동체주의에 대해 살펴볼 차례가 되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것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하우어워스의 기독교 공동체주의에는 여러 면에서 다른 점과 특징들이 담겨 있을 것이다. 다만, 공동체주의적 단초를 통해 몇 가지 논의의 여지를 찾아볼 수 있을 듯싶다.

하우어워스의 논의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관심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관점과 연관 지어 나타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덕을 배운다고 해서 덕스러워지는 것은 아니라, 덕은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관심이 그렇고,²⁴⁾ 덕의 함양에서 습관의 중요성을 말하는 부분 역시 그렇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도덕성숙을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일정한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습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는 과연 어떤 습관이 신실한 성품함양을 독려하는가를 다루지 않

22) *Nicomachean Ethics*, 1126a1-3.

23) 권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 응징정의관을 중심으로」, 한국서양고전학회, 『서양고전학연구』, 제10집, 1996, 35.

24) Stanley Hauerwas, 문시영 역, 『교회됨』(북코리아, 2010), 265.

은 채 덕목들을 실천하기만 하면 성품은 저절로 함양된다고 생각해버리고 말았다.²⁵⁾

하우어워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석가이기를 자임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예수 내러티브에 의한 교회됨의 가치를 강조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는 성경의 내러티브를 삶의 중심으로 삼는 공동체이어야 하며, 교회는 성경을 예배와 삶에 적용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세우는 공동체이어야 한다.²⁶⁾ 이점에서, 하우어워스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힌트를 받아 기독교 공동체주의를 전개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정적 정의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반향은 어떠한가? 이쉽게도, 하우어워스에게서 교정 혹은 시정에 대한 단초들을 찾아보기는 그리 쉽지 않다. 하우어워스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교회의 문제들을 몰라서도 아니고 순진(naive)해서도 아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을 듣지 못해서도 아니다.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을 따름이다. 더구나, 교회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관점이 칭송일변도인 것은 아니다. 그가 말하는 교회는 현실의 교회가 아니라, '되어야 할 교회'라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²⁷⁾

굳이 따지자면, 교회다움에 관한 기준 혹은 표식(marks)에 대한 언급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정적 정의에 견줄만한 표현이 나오기는 한다.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교회란 성례가 시행되며 말씀이 선포되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독려하며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성례와 말씀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는 사랑과 배려와 정의의 덕을 구현하는 성도들로 이루어진다. 성도들이 서로를 세워주고 잘못을 바로

25) 문시영, 위의 책, 271.

26) 위의 책, 141.

27) 위의 책, 교회됨.

잡아주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²⁸⁾ 여기에 사용된 ‘바로잡아준다’는 표현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정적 정의에 비견할만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물론, 교회의 문제에 대한 인식은 분명하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초대교회가 흠잡을 데 없이 완전한 교회였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바울 서신 중 고린도교회 부분을 읽어보면 그 생각을 바꾸게 될 것이다. 고린도 교회는 분열되고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이교도의 이단에 연루되기도 했다. 오늘의 교회가 엉망진창이라고 생각된다면, 고린도교회의 예를 기억하면서 그 해법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²⁹⁾

더구나 고린도교회를 향한 바울의 비판을 보면, 교회가 애뜻하게 아름다운 공동체인 것만은 아닐 듯싶다. 동시에, 세상의 기준으로 유능한 자들만을 불러 모아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³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하우어워스는 교회의 도덕적 불완전성을 부각시키기보다 교회에 은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하우어워스의 책 제목처럼, ‘십자가 앞에 깨어지는 교회’(cross-shattered church)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하다는 뜻일 듯싶다.

교회의 갈등에 대해서도 하우어워스의 해석은 각도가 다르다.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교회에도 갈등은 일어나게 마련이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는 갈등이 없는 장소가 아니라 고백과 화해와 용서의 수단을 받은 백성이 되라는 부르심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에 의해, 우리는 폭력의 사용이 일상화된 세상과는 달리 갈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³¹⁾ 이것

28)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6), 106-109.

29) Stanley Hauerwas, *Working With Words : On Learning to Speak Christian* (Eugene, OR: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1), 144.

30) Stanley Hauerwas, *A Cross-Shattered Church*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9), 74.

은 교회가 용서받은 자로서, 화해와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같은 맥락에서, 교회의 갱신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인식도 다르다. 갱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시정적 정의에 견줄 만한 표현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전혀 다른 반응을 볼 수 있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갱신은 영웅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지속적으로 능력을 체험함으로써 갱신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³²⁾

어찌 보면, 하우어워스에게서 자정에 대한 논의는 다소 소홀해 보이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우어워스가 스스로 말했듯이, 그 자신은 어느 특정한 교회의 구성원이라기보다 일종의 노숙교인 혹은 교회난민(ecclesiastically homeless)이다.³³⁾ 이러한 탓에 교회 안의 복잡한 갈등에 대한 관심이 깊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하우어워스는 자신의 교회편력 때문에 자신의 관점을 왜곡시키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소망하는 신학자이다. 이는 윤리적 자정에 무심해서라기보다 다른 방식의 해법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듯싶다.

하우어워스에게서 비전의 중요성과 내러티브 중심성,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강조가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³⁴⁾ 그는 신실한 제자 되는 것을 강조

31) Stanley Hauerwas and William Willimon, *The Truth about God*, 강봉재 역, 『십계명』 (복있는 사람, 2007), 125.

32) Stanley Hauerwas and William Willimon, *Resident Aliens*,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복있는 사람, 2008), 258.

33) Stanley Hauerwas, *Hannah's Child : A Theologian's Memoir* (Grand Rapids, MI: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0), 255. 실제로 하우어워스는 텍사스 감리교인이지만, 가톨릭대학인 노트르담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고 루터교회에 출석했으며 현재는 성공회에 출석하고 있다.

34)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1) reprinted ed., Introduction, p. v vii

하되, 제자 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처방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던 듯 싶다. 어찌 보면, 이러한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뭔가 손에 잡히는 대처방안을 내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우리들 마음의 문제일지 모른다. 혹은 교회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만을 윤리적 자정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그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하우어워스가 즐겨 쓰는 표현처럼 ‘건설적인’(constructive) 의미에서 대안을 제시하려 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뜻이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교회가 윤리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사람들을 이끌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인물과 만나게 해주는 것이다.³⁵⁾ 하우어워스가 보기에, 복음서는 사랑에 관한 것이라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말하고 있다. 특히, 복음서의 윤리는 사랑의 윤리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도록 이끌어주는 윤리이다.³⁶⁾

이러한 뜻에서, 하우어워스가 염두에 두었던 것은 ‘용서’와 ‘평화’의 덕을 함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정체성에 충실해지는 방법론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하우어워스에 따르면, 용서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³⁷⁾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삶은 도덕적 완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성도들이 성례전의 백성이라는 점을 일깨워준다. 성례전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수 된 우리들

35) Stanley Hauerwas and William Willimon,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148.

36) Stanley Hauerwas, *Vision and Virtue : Essays in Christian Ethical Reflec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4), 2nd print, 1986, 115.

37) Stanley Hauerwas and William Willimon, *Lord, Teach Us*, 이종태 역,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복있는 사람, 2006), 135.

자신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³⁸⁾ 하우어워스는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예수의 교훈을 해석하면서 용서와 비난이 한 덩어리로 결속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용서를 통해서이고 잘못을 비난하는 것 역시 교만에서가 아니라 용서에 의한 것이라는 뜻이다.³⁹⁾

사실, 그리스도인 자신이,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 이외의 다른 근거로 교회에 모이게 된 것이 아니다. 이는 공동체의 위험요소일 수 있다. 알 수 없는 사이에 늑대가 숨어들어 올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실 것으로 믿으며 자신들이 해야 할 몫은 사랑의 실천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⁴⁰⁾ 이 부분은 하우어워스의 교회에 대한, 그리고 교회의 자정에 대한 무한신뢰를 보여 주는 대목일 듯싶다.

또한 하우어워스의 트레이드 마크에 해당하는 평화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교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은 개인의 몫이라기보다 교회공동체가 실천해야 할 덕이다.⁴¹⁾ 이러한 관점은 건설적인 것인 동시에 하우어워스적 접근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현실에는 교회의 교회되지 못함이 체감되고 있으며, 교회답지 못함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교회가 내부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이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을 듯싶다.

38)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 A Primer in Christia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6), 110.

39) Stanley Hauerwas and Charles Pinches, *Christians among the Virtues : Theological Conversations with Ancient and Moder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7), 108.

40) 위의 책, 109.

41) Stanley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1), 96.

과연 교회는 교회 안의 불의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정해야 하는 것일까? 교회의 문제들에는 유형별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가정할 필요가 있다. 구성원 중 일부가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구성원들과 함께 리더가 주도하여 해결하는 방법이 적용될 수 있겠다. 하지만, 리더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문제들이 지닌 특성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데 고민이 있다.

중요한 것은 윤리적 자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다. 앞서 아리스토텔레스로 대변되는 공동체주의적 관심을 통해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었다. 바울의 권면을 응용하여 해석하자면, ‘악한 동무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말한 부분(고전15:33), 교회 안에서 부도덕한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했던 부분(고전5:9-11), 불신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했던 부분(고후6:14-7:1)에서 공동체적 자정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듯싶다. 또한 출교조치가 행악자를 돌이키게 하고 화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했던 부분(고후2:5-11) 역시 공동체주의가 지향하는 시정을 통한 회복을 구현하는 단초일 수 있겠다.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시정적 정의를 공동체 외부의 힘을 빌어 실현하려는 관점이다. 시정을 통한 자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공동체 내부에서 공동체적 가치의 회복을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 바울이 공동체의 문제해결을 위해 세상 법에 호소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교회를 향하여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살전5:21)고 권한다.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향하여 세상법정에 소송하는 것을 꾸짖었던 부분에서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과연 세상법정에 가져갈 문제인지를 분별할 지혜가 교회에 필요하다는 취지였을 것이다(고전6:1-8).⁴²⁾

42) Joseph J. Kotva, Jr., *The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Washington, D.C.:

이러한 뜻에서, 공동체적 자정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 교회의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교회의 자정능력은 바닥이 나버렸다고 단정지어버린 채, 탈출구를 시민적 비판에서 찾는 것은 과연 교회다움에 속하는 것일까? 사실, 세상이 원하는 교회, 시민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곧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와 동일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 자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는 것이 더 큰 용기와 신앙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하우어워스가 말한 것처럼, 교회는 소진되지 않는 능력을 지닌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하신 것은 ‘끝났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끝나지 않는 것’으로 만드셨다.⁴³⁾

말하자면, 교회됨을 위한 자정의 노력은 교회 안에서 계속되어야 하며 교회다운 교회를 위한 자정의 방식에서도 교회다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복음적인 것을 과감히 버리고 복음적 순수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는 결코 소중파적 퇴거의 모습이 아니다. 시민의 기준으로 읽으면, 하우어워스는 자폐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하우어워스처럼 성경을 기준으로 교회를 보고 시민사회를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한 것 또한 분명하다. 이점에서, 하우어워스의 제안은 소중파적인 것이라기보다 예수 내러티브에 충실한 교회를 위한 제안이라 하겠다.

사실, 교회에 대한 비판에는 매우 선택적인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은 남부의 교회를 비난하면서 인종주의에 대항할 예언자적 비판과 리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6), 119-131.

43) Stanley Hauerwas, *Cross-Shattered Christ*, 신우철 역, 『십자가 위의 예수』(새물결플러스, 2009), 106.

더십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한다. 교회의 실패를 드러내려는 그들의 열심에서 간과된 것이 있다. 남부 백인들의 교회만이 그곳의 유일한 교회인 것은 아니다. 사실, 남부에서 교회가 실패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흑인회중들은 다가올 투쟁에 충분히 대비할 사람을 키워내고자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 신학자들이 연구대상으로 삼는 교회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오가는 폭넓은 것이어야 한다. ...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며 세대와 세대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증인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주실 것이다.⁴⁴⁾

III. 나오는 말

한국교회의 윤리적 현실은 ‘문제는 있으나 답이 없는 상황’이다. 혹은 ‘문제와 비판은 있으나 대안으로서의 해법이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교회의 윤리적 자정과 성숙 그 자체를 포기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교회의 내부적 윤리적 자정의 가능성 그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위한 논의를 빗나가게 만드는 위험요소일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교회의 윤리적 성숙에 대한 하우어워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균형잡힌 이해와 한국적 실천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야 할 듯싶다.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에 교회됨을 위한 아젠더만 있을 뿐, 구체적인 매뉴얼이 부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다시 말해, 교회됨이라는 아젠더 자체가 자유주의 정치에 결탁된 교회의 본래적 정체성 회복을 촉구하는 거시적 의미의 자정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국적 맥락에서 교회됨을 위한 자정의 구체적인 매뉴얼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듯싶다.

44) Stanley Hauerwas, 문시영 역, 『교회됨』(북코리아, 2010), 212.

하우어워스가 기독교 공동체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정적 정의를 수용한 현대의 공동체주의자들이 주는 단초들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은 충분해 보인다. 공동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공동체 내부에서 시정적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적 단초를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활성화시켜 한국적 실천방법론을 제시해야 하는가에 대해 본격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 권창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관: 응징정의관을 중심으로』. 한국서양고전학회. 『서양고전학연구』 10권, 1999.
- 김영기. 『마이클 샌델의 정의관 비판』. 동서사상연구소. 『동서사상』 10집, 2011.
- 문시영. 『니체의 사회윤리에 관한 공공신학적 해석』.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16집, 2008.
- 문시영.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로서의 사회윤리』.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20집, 2010.
- 문시영. 『하우어워스와 덕의 공동체로서의 교회』.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기독교사회윤리』 23집, 2012.
- 문시영. 『하우어워스의 윤리에 비추어 본 예배공동체로서의 교회』. 한국기독교교회.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9집, 2012.
- 박정순. 『공동체주의 정의관의 본질과 한계』. 『철학』 61집, 한국철학회, 1999.
- 배정훈. 『기독교 자정능력으로서의 거룩의 발견』. 대한기독교서회. 『기독교사상』 47호, 2003.
- 유호중. 『응보주의 형벌론 검토』. 한국분석철학회. 『철학적 분석』 5호, 2002.
- 이진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철학과 현실』 1990, 가을호.
- 정태욱.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관한 소고』. 한국서양고전학회. 『서양고전학연구』 3권, 1989.
- Aristoteles, 최명관 역. 『니코마코스 윤리학』. 서광사, 1989.
- David Fergusson. *Community, Liberalism, and Christian Eth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Joseph J. Kotva, Jr. *The Christian Case for Virtue Eth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1996.
- Michael J. Sandel. *Justice: What's the Right Things to Do?*. New York: Straus and Giroux, 2009.
- Stanley Hauerwas. *Vision and Virtue : Essays in Christian Ethical Reflection*.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74.
- Stanley Hauerwas. *After Christendom?*. Nashville: Abingdon Press, 1991.

- Stanley Hauerwas and Charles Pinches, *Christians among the Virtues: Theological Conversations with Ancient and Modern Ethics*.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1997.
- Stanley Hauerwas, *Character and the Christian Lif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1.
- Stanley Hauerwas, *Christian Existence Today*.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1.
- Stanley Hauerwas, *The Peaceable Kingdom*.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2006.
- Stanley Hauerwas and William Willimon, *Lord, Teach Us*. 이종태 역,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복있는 사람, 2006.
- Stanley Hauerwas and William Willimon, *The Truth about God*. 강봉재 역, 『십계명』. 복있는 사람, 2007.
- Stanley Hauerwas and William Willimon, *Resident Aliens*, 김기철 역,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 복있는 사람, 2008.
- Stanley Hauerwas, *A Cross-Shattered Church*. Grand Rapids: Brazos Press, 2009.
- Stanley Hauerwas, *Cross-Shattered Christ*. 신우철 역, 『십자가 위의 예수』. 새물결 플러스, 2009.
- Stanley Hauerwas, *A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 북코리아, 2010.
- Stanley Hauerwas, *Hannah's Child: A Theologian's Memoir*. Grand Rapids, : Wm B. Eerdmans Publishing Co, 2010.
- Stanley Hauerwas, *Working With Words: On Learning to Speak Christian*. 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2011.

논문투고일: 2013. 2. 22.

심사개시일: 2013. 3. 23.

게제확정일: 2013. 4. 20.

• 국 문 초 록 •

하우어워스(Stanley Hauerwas)의 ‘교회윤리’(ecclesial ethics)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난제 중 하나는 그가 제안한 ‘교회됨’의 비전을 실천할 방법론의 문제이다. 하우어워스의 문제의식은 교회의 윤리적 성숙을 위해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준 것임에 틀림없지만, 교회의 윤리적 자정(自淨)이 문제시되고 있는 한국적 맥락에서, 구체적인 실천을 위한 전략 혹은 방법론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하는 듯싶다. ‘교회되지 못함’ 혹은 ‘교회답지 못함’의 모습들을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교회는 과연 윤리적 자정이 가능한가? 혹은 교회됨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척결할 방안은 있는가? 이 질문들은 근본적으로,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 그 자체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된다. 하우어워스는 윤리적 자정을 신뢰하는가?

자정의 관점에서,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는 교회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교회됨’은 거시적 자정의 방향제시로 평가되어야 한다. 교회됨이라는 아젠다 자체가 자유주의 정치에 결탁된 교회의 본래적 정체성 회복을 촉구하는 거시적 의미의 자정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하우어워스의 교회윤리에 교회됨을 위한 미시적인 자정의 문제 즉 구체적인 실행 메뉴얼이 부각되지 못하는 것은 한계이다. 그러나 하우어워스가 기독교 공동체주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정적 정의를 수용한 현대의 공동체주의자들이 주는 단초들을 활성화시켜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보인다. 공동체의 회복을 목적으로, 공동체 내부에서의 시정적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적 단초를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실천 방법론을 제시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한국교회와 기독교윤리학이 시급히 모색해야 할 과제이다.

주제어: 도덕적 제재, 시정적 정의, 교회됨, 교회윤리, 콘스탄틴적 결탁, 기독교 공동체주의, 하우어워스